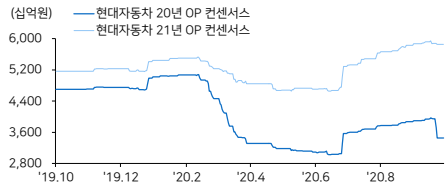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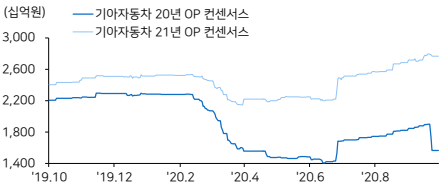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0. 10.30(F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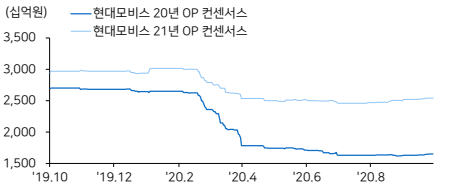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RA 이다빈
02.6454-4866 02.6454-4882
joonsung.kim@meritz.co.kr dabin.le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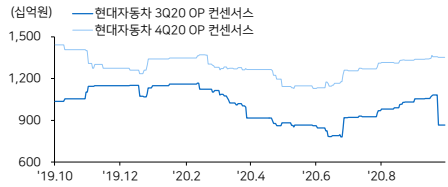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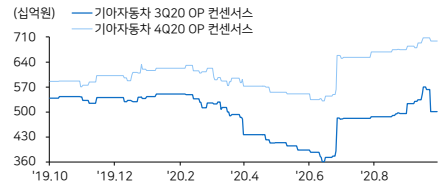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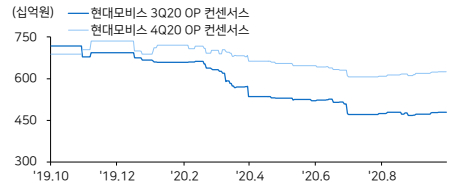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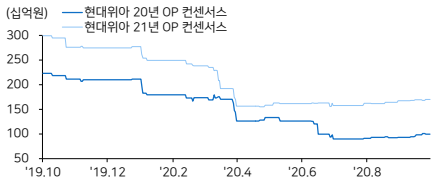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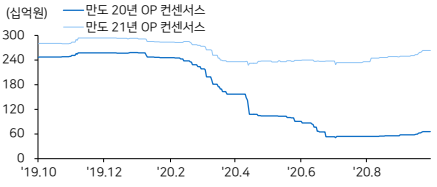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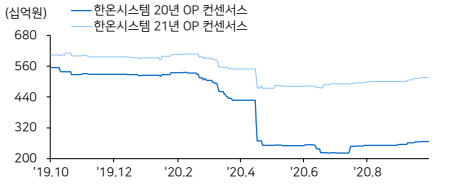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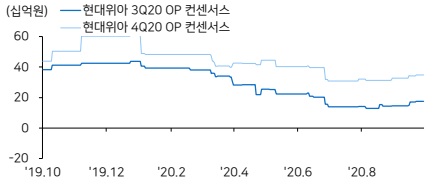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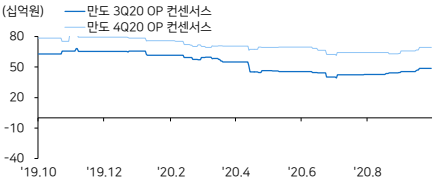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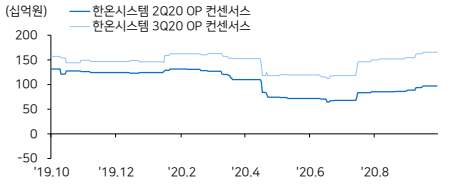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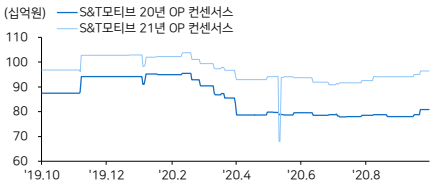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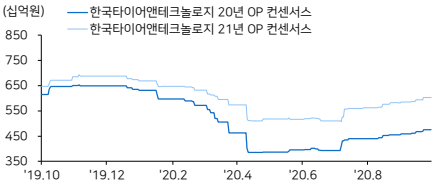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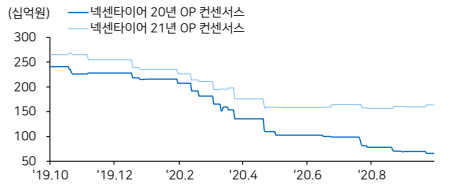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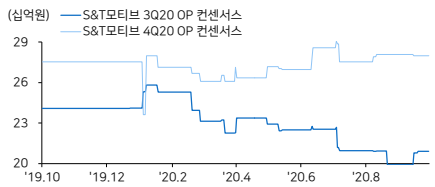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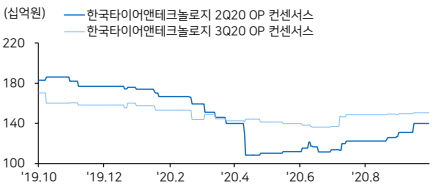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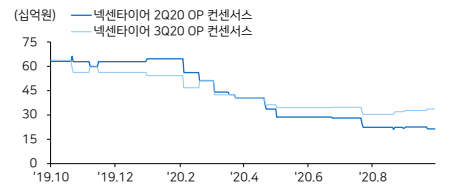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주행보조 성능, 벤츠와 동급 평가…BMW에 앞서 (아이뉴스24)

현대기아차의 주행보조 시스템 성능이 메르세데스-벤츠와 비슷하고 BMW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됨. 같은 조사에서 GM은 1위를 차지했고, 테슬라가 뒤를 이음.
https://bit.ly/3mACOaa

팰리세이드 5천만원부터'…현대차 중국 현지 '제값 받기' 전략 먹힐까 (서울경제)

현대차가 중국 시장 반등을 위한 해결사로 현지에 투입한 팰리세이드가 국내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관심을 모음. 중국 내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중국 현지 생산한 '베이징현대'차가 아닌 한국서 수입한 '현대차'로 판매하고 '제 값'을 받겠다는 전략.
https://bit.ly/3jFTZW7

현대차, 미국엔 "코나 화재,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 인정 (한겨레)

코나 일렉트릭의 연이은 화재로 리콜(시정조치)에 착수한 현대자동차가 미국 당국에 소프트웨어 결함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국내에서 현대차는 엘지(LG)화학이 제작한 배터리셀이 문제라고 주장해옴.
https://bit.ly/3mEfdp1

미 자동차 시장 의외로 빠른 회복세…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연합뉴스)

미국 차 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의외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자동차 산업은 경기 부침이 잦지만 이번에는 회복 속도가 워낙 빨라서 반년 전만 해도 몇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던 회사 경영진이나 증시 관계자들이 모두 놀라고 있음.
https://bit.ly/3e72CYv

제네시스 '고급차 격전지' 중국 · 유럽 진출한다 (한국경제)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한 제네시스의 다음 과제는 해외 시장 공략. 최근 미국 시장에 신형 G80와 GV80를 내놓은 데 이어 내년엔 중국과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
https://bit.ly/3e6cmCu

전기차 인기에… 현대모비스 분기 매출 1조 첫 돌파 (세계일보)

현대모비스의 올해 3분기 전동화 사업 부문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 코로나19로 자동차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서도 전기차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는 점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https://bit.ly/3oBWfRT

"운전, 승마처럼 취미로 남게 될 것"…손정의 · 젠슨 황의 예언 (한국경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운전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운전은 승마처럼 취미로 남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전망.
https://bit.ly/2G8U3zQ

남좋은 일만 한 '전기차 보조금'…너도나도 테슬라만 뽑았다 (머니투데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산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이 해외 자동차기업 배만 불릴 처지에 놓임. 대당 최소 1000만원인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 상반기 기준 40% 넘게 독식한 테슬라가 앞으로도 그린뉴딜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
https://bit.ly/2TI6yFD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